

제 1 장 학회 30년 개관

고재웅 (14대 회장)

1.1 개 관

한국수자원학회는 1967년 11월 20일 물정책 수립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낙후된 우리나라의 수문기술 발전에 획기적인 도약대를 마련하고, 수문기술의 근대화를 촉진하여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한국수문협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1967년과 1968년의 2개년에 걸친 삼남지역의 극심한 한발과 그리고 1972년도 한강에서의 큰 홍수 등을 겪는 과정에서 수문협회는 그 설립취지에 맞게 많은 기여를 하면서 학술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게 되었다. 5개년에 걸친 초창기에 학술단체로서의 체제를 본 궤도에 올리게 되자 1972년 5월 23일 협회의 성격으로는 학술활동에서 많은 제약이 뒤따르는 한계성을 회원들이 인식하게 되어 한국수문학회로 개칭·개편하였다.

한국수문학회는 1995년 2월 18일까지 23년간 우리나라 물 문제를 선도하는 학회로서 수자원, 수리, 하천, 해안항만, 농업수리, 기상, 지하수, 환경위생, 지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물 개발과 이용 및 물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한 학문연구와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의 입안을 위한 방향제시에 깊이 관여하면서 그 업적을 크게 남겼다.

실질적으로 학회에서 대상으로 한 학술영역은 수자원 전반적인 것으로, 물에 관한 종합학술단체이면서 외형적으로 수문학회라는 명칭이 이를 대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많은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1995년 2월 18일 학회명칭을 새로이 한국수자원학회로 개칭하면서 지금에 이르

게 되었다. 한편,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학회의 성격과 활동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면에서 볼 때, 시기 적절한 개칭으로 이러한 점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였다.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돌이켜 보면 설립 당시 우리 나라 전반적인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학회활동은 미약하기 짝이 없었다. 학회의 수적인 면에서 회원수나 그리고 학술연구에 있어서나 학회다운 면모를 갖춘 학회를 찾기는 어려운 시기였다. 이러한 몇 개의 개별 학회에 소속하고 있던 회원들이 모여 수문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영역을 표방하면서 새로운 학회가 태동한다는 것을 협조적으로 바라보아 주지는 않았다.

기존 소속학회에 포함되어 있는 수자원분야의 위축이 예견되었으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많지 않은 전문인력들을 한 곳으로 결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학문적 발전 즉, 수자원을 종합학술 영역 속에서 함께 다룰 수 있는 현실적 요청이 절실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에 학회설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우리 학회가 학문발전과 실무기술 향상에 끼친 영향은 결코 과소평가 될 수 없다. 학회가 추진해 온 선도적인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활동은 그 뒤 인접 학문영역들과의 연대만으로 밖에 성취시킬 수 없는 새로운 학문영역의 개발과 발전에 효시가 되었으며, 뒤따라 많은 학회들을 새로이 설립시키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1.2 학회 설립의 바탕

1.2.1 수문학의 초기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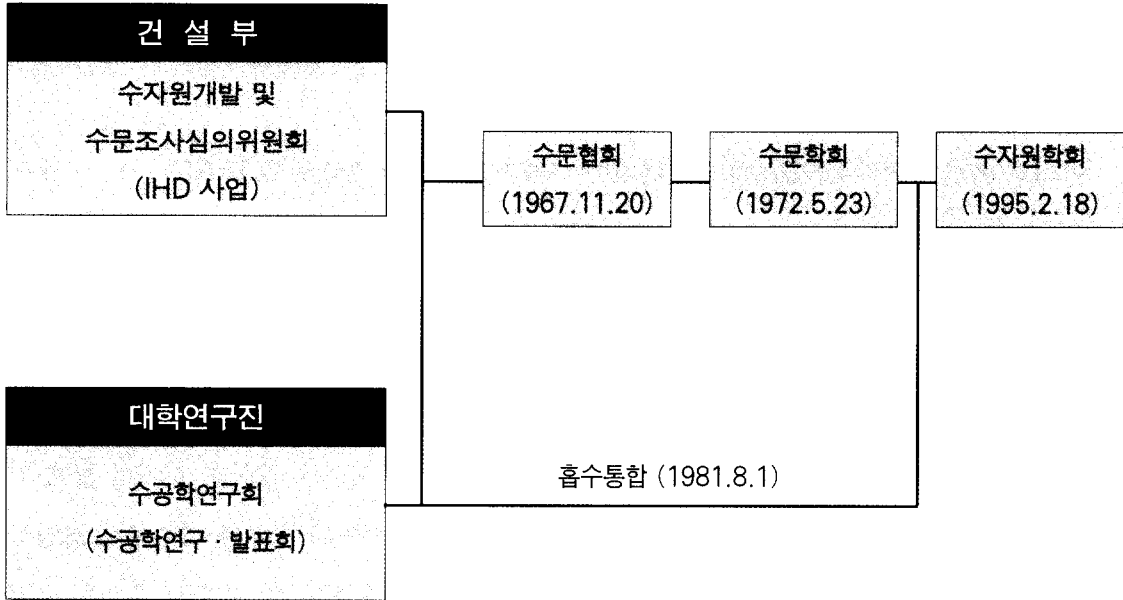
학회설립의 태동은 두 갈래 흐름 속에서 시작되었다. 20세기 전반기 우리 나라 수공학의 성장을 그대로 인계 받은 정부기구이었던 1960년대의 건설부 수자원국은 하천조사 및 계획수립, 하천공사의 집행, 수문조사 및 관측 등을 통해 실무적인 업무를 전담하고 있었다. 여기서 수문기술의 정비에 착수하면서 「한국수문조사서」를 간행하였고, 매년 수문자료를 취합 「한국수문조사연보」가 정기적으로 나오게 만들었으며, 「한국의 홍수」 등이 연간으로 나오게 되었다.

유엔 산하 아시아 극동경제기구(ESCAPE)에서는 역내 수자원개발을 위한 전문지식의 제공으로 이에 영향을 받은 기술진들을 실무에 포용할 수 있었으며, 수문학을 가까이에서 다룰 수 있는 훈련된 기술인력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UNESCO가 주관하여 세계적인 규모로 추진하게 된 IHD 사업(국제수문개발 10개년계획: International Hydrological Decade)에 건설부 수자원국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바탕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IHD 사업의 참여에는 각 국가별로 이 사업을 전담할 국내위원회의 구성과 설치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국내위원회로서 건설부내에는 수자원개발 및 수문조사심의위원회가 1965년부터 구성·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흐름은 국내 각 대학들에서 수공학 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던 교수들 중심의 모임을 시작한 것에서 찾게 된다. 학생들을 위한 충실한 교육을 목표로 연구하기보다는 공부하면서 서로를 깨우치는 모임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서울대 공대 안수한 교수의 주도하에 1964년 1월 서울대 공대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이 때를 시작으로 활발한 학문적 교류뿐만 아니라 발전적으로 연구논문의 발표를 궁극적인 목표로 세워 매년 2회씩 하·동계 방학중에 모임을 갖기로 하면서 활성화되게 되었다. 모임의 명칭을 수공학연구회로 하고 학술모임은 수공학연구발표회로 참신한 학문적인 충족감을 줄 수 있게 만든 역할을 담당해 오게 되었다. 여기에 참여한 회원들이 수자원개발 및 수문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IHD사업을 위해 학문적 조언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산학이 같은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만 하는 기회가 극대화 될 수 있었다.

한국수문협회의 설립 추진의 주체는 건설부에 설치되어 있던 수자원개발 및 수문조사심의위원회가 되었으며, 주 핵심적인 전문가는 모두 수공학연구회에 소속되었던 교수들이 설립의 주체로서 깊이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순탄한 출발을 보게 되었다. 이를 뒷받침한 실무적인 업무는 건설부 수자원국 이수과 수문계에서 전담·수행하였다. 건설부에서 설치 운영했던 수자원개발 및 수문조사심의위원회는 그 뒤 4대강 유역종합개발위원회로 되었다가 다시 중앙하천관리위원회로 확대·개편되어 지금은 보다 넓은 정책입안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2.2 IHD 사업

IHD 사업은 UNESCO 주관 하에 1965년에서 1974년까지 10개년에 걸쳐 세계적인 규모로 참가 각국이 협력하여 수자원의 종합적인 조사연구와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그 기구조직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었다. IHD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국내 및 국제 기구가 설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IHD 사업에 참가한 모든 국가들은 IHD 국내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국내위원회는 분산되어 있는 모든 수문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간행물로 보급하도록 하였으며, 그 지역의 조건과 필요성에 맞는 전문 인력의 확보와 관측망을 구성하여 IHD 국내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도록 하였다.

국제적인 기구로는 IHD 사업의 집행기구인 이사회로 21개국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이사회에는 유엔(UN),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기상기구(WMO),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유네스코(UNESCO) 대표들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IHD 사업가운데 특별한 사업들을 선별하여 IHD 이사회내에 각국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나 연구소위원회 등이 구성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 기간동안 IHD 사업가운데 역점사업 이었던 대표시험유역 조사사업으로 한강수계의 경안천, 금강수계의 무심천, 낙동강수계의 금호강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수문관측과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IHD 사업 국내위원회로서는 건설부 산하에 설치하였던 수자원개발 및 수문조사심의위원회 가운데에서 수문조사위원회가 이를 전담하였다. 실무작업은 모두 건설부 이수과 수문계에 서 담당하였으며, 수문계장이었던 김운제씨가 간사로서 활동하였다.

수자원 개발 및 수문조사심의위원회의 규정(1965년 4월 29일 공표, 대통령령 제 2120호)에 명시된 위원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수자원개발 계획에 관한 중요 지침과 그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수자원개발에 관한 공법의 연구에 관한 사항.
3. 수문조사에 관한 연구 및 자료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수문조사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을 위한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수문조사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국제수문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한 협조에 관한 사항.

수문조사심의위원회에서는 상기 직능가운데 3~6항까지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이 가운데 6항이 바로 IHD 국내위원회의 직능에 해당한다.

1.2.3 수공학연구회

국내 각 대학에서 수공학분야의 강의를 담당하면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고 있는 모든 교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가운데 서울대 공대 안수한 교수의 주도로 모임을 가지는 발기가 이루어졌다. 몇 차례의 개별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서 1963년 8월 5일 경기공고 수리실험실에서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모임의 명칭을 수공학연구회로 확정하였다.

연구회는 자율적 발전과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 알맞는 체제로서 회장과

정관도 없으면서, 간사 한 사람을 선정하여 모든 업무를 담당케 하면서 매년 하·동계 방학중 연 2회식 개최기로 합의하였으며, 초대 간사는 연세대 이원환 교수가 선임되었다. 1964년 1월 21일 서울대 공대에서의 첫 모임에서는 13명이 참석하였으나 2회 동아대에서의 모임에는 100명에 달하는 인원이 참석하는 급증을 보여 주었다. 1967년 7월 8회 연구회를 부산대에서 가졌으며 곧 이어 한국수문협회의 설립을 1967년 11월 보게 됨으로서 회원들은 거의 동일인들이 양 기구의 주축들이 되었으며 활동의 주인들이었다.

10회 발표회(1968. 7)가 있었던 조선대에서는 연 2회 개최가 연구기간이 짧아 발표논문수의 부족과 개최교의 재정적 부담 등을 감안하여 하계에 연 1회 개최기로 하였으며, 17회 동국대에서 있었던 수공학연구발표회(1975. 8)에서는 그 때까지 큰 어려움 없이 어떤 학회에도 소속되지 않으면서 아주 효과적인 학술발표 기능을 가졌던 발표회 개최가 시국 형평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의를 가졌다. 학술활동을 위한 논문발표회도 소속 정부기관의 사전승인이 있었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회원들의 의견은 특정 학회에 소속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합의하였으며, 대한토목학회 수공위원장이었던 인하대 강관원 교수가 간사를 맡아서 하게 함으로서 잠정적으로 발표회 개최의 돌파구를 열 수 있었다.

18회 전남대(1976. 7)와 19회 울산대(1977. 7)는 대한토목학회 수공위원회의 이름으로 개최할 수 있었으며 18회 개최시 이때 1963년부터 1976년까지의 논문을 모두 초록으로 모아서 발간할 수 있었다. 19회에 가서는 처음으로 연수회가 개최되어 수리학, 수문학에 대한 강의를 안수한, 선우중호 교수가 담당하였다. 20회(1978. 7) 강원대에서의 개최도 대한토목학회 수공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최하게 되었으며, 수공부인회가 이 때 구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1회(1979. 7) 경상대에서 그리고 22회 충북대(1980. 8) 모두 계속해서 3회에 걸쳐 당시 대한토목학회 수공위원장이었던 건국대 고재웅 교수가 주관, 개최하였으나, 그렇다고 대한토목학회에 귀속된 학술발표회는 아니었다. 22회 충북대에서는 수공학연구회의 장래문제를 결정하는 소위원회 구성이 결정되어 책임간사 강관원, 토목학회 고재웅, 농공학회 김시원, 기상학회 김광식, 수문학회 윤용남, 건설부 김운제 등에게 위임·결정토록 하였으며, 이 결과에 따라 수문학회에

흡수키로 되어 1981년 7월 수문학회 이사회와 평의원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4회(1982. 7) 중앙대에서의 발표회에서 총회인준으로 비로소 한국수문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회로 공식화되었다.

한국수문학회가 주관하기로 결정되어 25회(1983. 7) 경북대 농대에서의 개최를 시작으로 36회(1994. 7) 여수수산대 개최 때까지 당초 사용해 오던 수공학연구발표회의 명칭뿐 아니라 개최교에서의 업무추진 등은 변함없이 그대로 계승되었으며, 단지 한국수문학회의 행정조직으로 회원을 위한 연락 사항이나 논문집준비 등만 학회에서 지원하였다. 1995년 5월 수원대에서 수공학연구발표회의 명칭을 「1995년도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로 통일된 명칭을 사용키로 하여 현재 계속되어 오고 있다.

1.3 한국수문협회(1967.11. 20~1972. 5. 23)

1.3.1 설립경과

1967년 11월 20일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전기회관 회의실에서 설립회원 152명 가운데 99명이 참석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회장으로서는 그 당시 무임소 장관이셨던 김윤기 박사를 추대하고 부회장으로는 도화종합설계공사 김해림씨, 서울대 농대 박성우 교수를 모시기로 결정하고 한국수문협회가 정식 출범하였다. 창립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과 보고가 있었다.

<한국수문협회설립 준비경과 보고>

- 1) 1967년 7월 6일 건설부 수자원개발 및 수문조사심의위원회 제 14차 연구소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우리 나라 수문학의 급속한 발전을 기하기 위한 토목, 농업토목, 삼림, 지질, 지하수, 기상 등의 분산되어 있는 각 분야를 망라한 수문학자 및 수문기술자의 상호간의 협조가 될 기구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 2) 1967년 7월 29일 수공연구회 제 8차 회의석상에서 본협회 설립을 위한 준비를 착수하

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 3) 1967년 8월 31일 협회설립준비를 위하여 박성우 교수외 8인 간담회가 있었으며, 준비위원 25명으로 준비작업을 진행하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
- 4) 1967년 9월 9일 한국교육회관에서 준비위원회 제 1차 회의가 있었음. 동 회의에서 준비위원회운영규정통과 및 준비위원장으로 박성우, 총무간사 김운제, 섭외간사 최영박을 선출하여 준비작업을 구체화하였으며
- 5) 1967년 9월 14일 서울신문사 별관에서 제 2차 준비위원회가 개최되어 수문의 홍보문제 및 협회정관작성에 대한 협의와 홍보의 일환으로 한미기술협회와 협의하여 수자원개발에 관한 세미나에 대한 방법이 논의되었으며 협회의 주무관서를 건설부로 할 것을 합의.
- 6) 1967년 10월 4일 제 3차 준비위원회가 한미기술협회에서 개최되어 정관의 확정과 10월 10일부터 적극적으로 설립위원의 추대작업을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음.
- 7) 1967년 11월 9일 제 4차 준비위원회에서 한국수문협회 창립총회를 IHD 기념우표 발행일인 11월 20일로 합의.
- 8) 1967년 11월 14일 제 5차 준비위원회에서 창립총회 진행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협의.
- 9) 1967년 11월 16일 준비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그 업무 일체를 한국수문협회 설립위원회로 인계 현 준비위원은 전원 설립위원으로 합류 결정.
- 10) 1967년 11월 16일 제 1차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 ① 준비에 대한 경과보고
 - ② 위원장으로 김윤기 씨를 선출
 - ③ 정관 확정
 - ④ 예산안 사업계획 통과
 - ⑤ 창립총회 일자를 1967년 11월 20일 하오 2시로 결정
 - ⑥ 협회 설립에 대한 제반 등기수속을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결정

1.3.2 협회의 활동

협회가 설립되면서 초창기 협회의 업무는 건설부 수자원국 이수과 수문계에서 맡아 수행하였다. 이수과 수문계 김운제 계장이 간사의 업무를 대행하였으며, 임시 협회사무실은 자동적으로 수문계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는 형식이 되었다. 1968년 2월에서야 협회의 사무국장으로 김박길씨를 선임하게 되었으며 협회의 독립된 사무실로 한국수자원개발공사(서울 서대문구 정동 소재)의 사옥을 1968년 5월 대여 받아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협회의 기관지로 1968년 6월 「물」을 창간하였으며, 매년 1회 발간기로 확정하였다. 1969년부터는 회지의 명칭을 「물의 과학」으로 바꾸면서 연 2회 간행하였다. 1968년 8월에는 한발 피해가 극심하였던 전남지역에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하였으며, 한해극복을 위한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IHD 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대표시험유역조사에 대한 심사를 1968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였으며, 건설부의 요청에 의해 수자원조사연보를 1968년부터 수탁 받아서 수행한 바 이를 1980년까지 매년 계속 사업으로 실시하였다.

1.4 한국수문학회(1975. 5. 23~1995. 2.18)

1.4.1 경 과

한국수문협회 제 8회 정기 이사회(1972. 4. 11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사장실)에서는 한국수문협회의 명칭을 한국수문학회로 개칭하는데 대한 회원들의 의견 수렴과 구체적인 내용검토를 편집위원회에 지시하여 그 검토 결과를 다음 달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는 한국수문학회로의 명칭개명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이사회에 보고하였으며, 여기서 개명이 확정되었다.

제 6회 정기총회(1972. 5. 23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상황실)에서 한국수문학회로의 개명이 최종적으로 인준, 확정되었으며 정관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정관은 1973년 6월 15일 건설

부의 승인으로 확정, 공포되었다. 처음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단법인 한국수문협회 정관 개정(안)>

협 회 정 관	개 정 안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수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1 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수문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4 장 임원 및 직원	제 4 장 임원 및 직원
제 12 조 (임원) ① (생략)	제 12 조 (임원) ① (생략)
②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임원은 재경 정회원 한하여 피선거권을 갖으며 임원이 지방으로 전출하였을 때에는 잔여 임기에 불구하고 이사회가 보선한다.
제 5 장 기 관	제 5 장 기 관
제 20조 (이사회)	제 20 조 (이사회)
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⑤ (같은)
8. 회장으로부터 제외된 사항.	9. 호로
	8. 재경 임원이 지방으로 전출하였을 때에 그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9. 기타 사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10. 호로
부 칙	부 칙
	제 5 조 본 정관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72년 월 일 제 1조 (명칭) 제12조 (임원)2항 제 20조 ⑤항개정)

1.4.2 학회의 활동

한국수문학회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수행한 학술활동이 본 30주년의 주된 업적으로 평가되며 수문학회의 명칭으로 학술활동을 한 기간이 만 25년에 걸치게 된다.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면서 학회장을 맡으신 안경모 사장은 제 2대 회장에서 제 5대 회장까지(1969. 5. 10~1977. 2. 28)를 역임하면서 학회체제의 정비, 운영경비의 확보를 위한 위탁사업의 확충 등에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학회를 이끌었다.

학회지 「물의 과학」은 연 2회씩 1969년부터 간행되어 오다가 1980년 2월부터는 한국수문학회지를 연 4회씩 간행하게 되었다. 1974년도에는 과총에서 주관하는 과학기술용어 제정에 참여하여 수문학 용어를 통일·정비하였으며 1972년 2월에는 수문학에 있어 세계적 석학인 Ven Te Chow 박사를 우리 나라에 오는 계기에 명예회원으로 영입하였다.

1977년 10월 20일 우리 학회의 10주년 행사가 서울 중구 소재 쌍용그룹 강당에서 성대히 이루어 졌다. 이때 1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수자원개발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10년 분의 회지를 합본으로 발행하였다. 1981년 8월부터 수문학연구회를 학회에서 주관하게 됨에 따라 학회의 주된 학술발표회로 개최케 되었다.

1980년 7월에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회의실에서 한국기상학회와 공동으로 수문기상자료 발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공동연구를 위한 타 학회와의 협조를 넓힐 수 있었다. 건설부에서 실시 중이던 IHD사업의 대표시험유역조사에 대한 기술협조를 1968년부터 1973년까지 실시하였다. 1975년부터는 IHD 후속사업으로 IHP(International Hydrological Program)사업이 시작되었으며 건설부의 연구 수탁사업으로 우리학회가 담당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9년 9월에는 이때까지 국교가 없던 소련 레닌그라드 국제심포지엄에 학회를 대표해서 5명의 전문가가 파견되었다.

1988년 11월 5일에는 서울대학교에서 본 학회 주관으로 도시수문학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으며 매년 개최해 오던 수공학연구발표회는 1994년 7월 9일 여수수산대학교에서의 제 36회 개최를 마지막으로 다음 해부터는 명칭을 95년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로 개칭기로 확정하

였다. 1994년도부터 학술 및 기술분과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각 분과위원회에서 수행할 연구비지원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1994년도 연구과업 보고회를 1995년도 정기총회 직전에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1.5 한국수자원학회(1995. 2. 18~현재)

1.5.1 경과

한국수문학회는 설립 후 2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인지도가 그리 높지 못했다. 명칭 자체만으로 학문영역을 유추할 수 있는 대상범위는 극히 제한된 인접 학술분야를 빼고는 같은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들도 알지 못하는 불이익을 겪어야 했다. 특히, 젊은 회원층들은 이러한 점을 강하게 앞세워 학회명칭 개명을 요청하게 되었다. 제 14대 회장단과 이사회(1993. 2~1995. 2)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회원들의 의견수렴에 착수하였다. 5차에 걸친 설문조사와 검토를 거쳐서 나온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조사는 별도 구성된 소위원회를 경기대 이종태 교수의 주관으로 실시하였다.

1차 설문조사는 1993년 7월에 서면으로 실시하여 응답회원 150명의 회신을 받았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수문학회 명칭 변경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 조사 일시 : 1993.7.10~17
- 조사 대상 : 한국수문학회 회원
- 응답 자 수 : 150명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현재 그대로	7	4.7	5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것이 바람직	98	65.3	1
꼭 바꾸어야 됨	24	16.0	2
현재로서 만족	11	7.3	3
관심없음(아무래도 좋음)	1	0.7	6
무응답	9	6.0	4

한국 수공학회	47	31.3	1
한국 수자원 공학회	26	17.3	3
한국 수문 수리 학회	3	2.0	9
한국 하천공학회	4	2.7	7
한국 환경 수공학회	7	4.7	5
한국 수문환경 공학회	4	2.7	7
한국 수자원 환경공학회	36	24.0	2
기타(명칭 기재)	7	4.7	5
무응답	16	10.6	4

기타명칭 : 한국수리수문학회(2), 한국수환경공학회(2)
 한국수자원학회(1), 한국수문수자원학회(1),
 수물리 환경학회(1), ()안은 인원수

1993년도 제 3차 이사회(1994. 1. 14)에서는 1차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 결과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뒤 다음 3개 명칭 즉, 한국수자원학회, 한국수문학회, 한국수공학회로 압축하여 이 가운데에서 선정키로 하였다. 이는 1994년 2월 19일에 있는 평의원 이사 연석회와 그리고 총회에서 보고되었으며, 1994년도 7월 여수 수산대학교에서 개최된 1994년도 학술발표회에서 여기에 참석한 모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여기서는 학회명칭 개명은 원칙적으로 수용키로 의견의 통일을 보았으며, 한국수자원학회 또는 한국수공학회중에서 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른 회원들의 의견 수렴은 1994년 10월 11일 나오게 되었으며 한국수자원학회

로 개명이 받아들여져 제 29회 총회(1995. 2. 18)에서 인준·확정되었다.

<학회명칭 개명을 위한 회원 의견 수렴 현황>

학 회 명	의정전 (제 2차) 주최 일수 1994. 1. 19	회원조사 (제 3차) 주최 일수 1994. 2. 25	수공학 연구발표회 (제 4차) 1994. 7. 9	의정전 (제 5차) 주최 일수 1994. 10. 11
	결과	결과	결과	결과
한국수자원학회	22	77	52	42
한국수공학회	14	53	53	28
한국수문학회	6	17	12	5
				기권 2
계	42	147	117	77

1.5.2 학회의 활동

1993년 2월에 처음 실시하여 매년 동계 방학기간을 이용해 오던 수공학 Workshop이 본계도에 올라 1996년 2월 5회까지 성황리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5년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로 개최된 과거의 수공학연구발표회는 예년에는 하계방학중 적당한 시일에 개최했으나, 이때부터 5월중에 개최키로 되어 5월 27일 수원대에서 가지게 되었다.

1996년 2월에는 95년 분과위원회 연구과업 보고와 IHP 사업 연구 보고회를 가져 학회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회원들의 참여폭을 계속 넓혀 나갔다. 1996년 7월 경기강원 북부지역 홍수피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학술발표회에서 보고하였다. 한국수자원학회는 출범한지 2년여의 짧은 기간에 학회명칭에 걸맞게 학술활동의 범위와 방향을 잡아가면서 회원들 곁으로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30년은 한국수문학회로서의 학회 발전과 업적이 되겠으며 앞으로 30년 뒤에는 우리 회원들이 한국수자원학회로서의 새로운 60년 역사속에 보다 큰 자리를 차지할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